

이태수 선생님을 기리며

Laudatio Magistri

강 상 진

(목포대학교 윤리교육과)

필자는 1983년 신입생으로 들었던 <철학개론> 강의에서 이태수 선생님을 처음 뵈 수 있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철학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에 상당한 기대로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늦게 휴강을 공고하러 온 조교처럼 강단에 서시더니 앞으로 철학을 전공할 학생들이니 머리 훈련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수업은 교재 없이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주제에 따라 질문을 던지시면 수강생들이 대답하고 그 대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질문을 던지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던지시는 편이었고, 처음에는 대체 될 원하시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대답도 그리 대단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던 것 같다. 신기했던 것은 다음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린, 혹은 너무 험클어져서 기억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였던 전 시간 수업내용을 그럴 듯한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주셔서, 다시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뭔가 크게 영망이 되었다가, 다시 개념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혹은 전혀 이해되지 않던 연관이 서서히 파악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우리들의 <철학개론> 수업시간에 반복되는 흐름이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의 수업내용이라기 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은연 중에 전달받은 분위기이다. 철학은 원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라는 인상은 이후 필자의 철학 공부의 여러 단계에서 유효한 방향타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

다. 물론 이후 이태수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수업은 교재 혹은 텍스트를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그런 수업에서도 토론의 종착점은 <철학개론>에서 경험했던 종착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 경험은 특별히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책을 읽을 때나 이런 저런 논문이나 글을 쓸 때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소화했다고 말하려면 이런 수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의 그 수준, 혹은 논문을 쓰려면 이 주제에 관해 저런 수준까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돌이켜보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철학개론> 수강 이후 다른 수업을 더 듣거나 다른 일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선생님의 면모를 더 알아갈 수 있었다. 어느 강의에서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명료성의 추구는 기본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 많은 영역들을 다 소화하실 수 있었는지 감탄할 뿐이었다. 교양 논리학 강의에서 보여주신 논리학자로서의 탁월성, 베르그송 강독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치함과 깊이, 플라톤의 『향연』을 함께 읽으면서 혹은 세네카, 키케로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었던 고전어와 고전적 사유는,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고전철학자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감히 그 폭을 짐작할 수 없는 넓이와 두께의 인문적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수업을 통해 어디까지 공부해야 정말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은연중에 전달받았던 것이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음은, 후에 유학생생활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었지만 선생님께 배웠던 방식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써 냈더니 그곳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더라는 간략한 보고로만 정리해 두겠다. 지금이라면 후학들 세 사람이 교육할 몫을 혼자서 하신 셈이며, 한 인격 안에서 종합된 사유의 폭과 깊이라 서로 다른 연구분야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학제간 연구와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선생님의 또 다른 면모는 탁월한 행정 능력에서 드러난다. 대학

행정에 처음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하던 시절, 기숙사의 전 직원이 일주일을 매달려야 해결되던 방 배정 문제를 직접 작성하신 프로그램으로 두 시간 만에 끝내셨다는 전설에서부터 대학본부의 많은 시스템들을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본부 직원들은 물론 철학과 대학원생들도 처음 나온 PC의 한글 프로그램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때, 각종 프로그램 언어들을 공부, 직접 프로그램을 쓰시고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때 컴퓨터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 새로운 형식의 합리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면서도 대학행정이 인문적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논리학과 고전학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의 능력 덕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능력은 문민정부 시절 교육부에서도, 후에 인문대 학장으로서도 발휘된다. 물론 선생님의 연구와 교육이 이러한 행정능력의 발휘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어떻게 연구와 교육, 행정과 같이 그 많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하실 수 있는가라는 경탄이 앞선다. 행정과 같은 공적인 의무에서 풀려나신 이후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구와 교육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니 말이다. 어느 틈엔가 상상도 못할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시고, 언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셨나 궁금할 정도로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스스로 개척하시는 중이라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후학들을 가르쳐 주실지 궁금해질 정도이다. 결국 선생님은 교육과 연구, 행정 모든 측면에서 발군의 실력과 성취를 보여주신 분이며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전형이라고 믿는다.

중세 윤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출발점 중 하나는 ‘선(善)은 자기 확산적’(bonum diffusivum sui)이라는 명제이다. 이 말이 맞다면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과 모범은 그 시절 그 곳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매료된 제자들과 학생들을 징검다리로 삼아 분석적 명료성, 치열하고 철저한 탐구의 정신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을 것이다.